

효천2지구 '초록빛깔 보행로' 생기 넘친다



효천2지구 초록빛깔 보행로 조성 조감도.

핑크몰리 등 자연 생태계 반영 그라스 정원 조성 내달 공사 완료...주민 휴식공간·운동 코스로 제격

광주 남구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 공간 및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효천 2지구 초록 빛깔이 넘치는 보행로 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구는 이번 보행로 조성사업에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보행로 조성사업은 총 1억원의 예산이 세워

졌으며, 공사비 9,300여만원, 연구·용역 550여만원 등이 투입됐다. 이번에 초록 빛깔로 채워지는 보행로는 효천 2지구 천년나무 3단지과 4단지 셋 길이다. 이번에 보행로 조성사업은 남구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직접 남구 보행로 들을 직접 관찰, 조사해서 효천 2지구 의 삭막한 보행로를 선정했다. 남구는 총 98.7m 길이에 좌우 폭이 9.7m인 이곳 보행로에 갈대와 핑크 몰리, 털수염풀, 모닝 라이트 등 자연 생태계 환경을 반영한 그라스 류를 테마로 하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 정원에는 초화류 8,190본과 이와 어울릴 수 있는 아팝나무, 나무수국, 라일락 등 수목 211주가 심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돌과 나무를 활용한 고정형 벤치인 앉음벽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5월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보행로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큰 호응을 하고 있다.

김 모씨(31)는 "주변에 가로수나 식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삭막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차에 구청에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 관리도 지속적으로 잘해서 남구의 대표적인 야의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곳 보행로는 아파트 단지 사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뒤쪽에 조성돼 있는 천변길 공원 산책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운동 코스로도 제격이어서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김 모씨(31)는 "주변에 가로수나 식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삭막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차에 구청에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 관리도 지속적으로 잘해서 남구의 대표적인 야의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곳 보행로는 아파트 단지 사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뒤쪽에 조성돼 있는 천변길 공원 산책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운동 코스로도 제격이어서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시투리 소식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전달

광주 남구는 지난 16일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남구청 공직자들은 화마의 상처를 입은 강원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570만원 가량을 모았다. 주민들도 흔쾌히 함께했다. 월산5동 김경목 주민자치위원장이 50만원을 쾌척했으며, 김태호 동북지호민관협의회 위원장도 50만원의 성금을 내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공개모집

광주 남구는 집중 호우가 내리는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관내 취약지역 점검을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공개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모집 인원은 4명으로, 참가자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 남구는 산림분야 근무 경력과 연령 등을 검토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예방단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오는 5월 20일부터 10월까지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순찰 및 점검, 응급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며,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 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살피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공원녹지과(607-3842)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출산 가정 마더박스 지원

광주 남구는 출산 분위기 조성 and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 사업에 나선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출산용품 마더박스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5만 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마더박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이며,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를 하면서 타 시·군·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 1명을 낳은 가정의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10만원에 출산용품 마더박스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여성가족과(607-3511)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제도시 2030 빅픽처' 그린다

지역 균형발전방안 모색...민선 7기 역점사업 속도

광주 남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와 도시첨단단지 및 에너지밸리를 연계한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남구 발전을 위한 '경제도시 2030 빅픽처' 그리기에 나섰다. 25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발전에 대한 빅픽처 구상을 위해 지난 19일 구청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남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청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 10명과 광주전남연구원 주요 부서장과 책임연구원 등 12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남구청 이현 기획실장의 현안 과제 발표와 광주전남연구원 조인형 책임 연구위원의 남구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한 뒤 심도 있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에너지와 농업기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남구 유치 가능성, 또 도시첨단단지과 에너지 밸리를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추진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남구가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킬러 콘텐츠 마련 등도 이야기 됐다.



폭력 예방 캠페인. 광주 남구는 최근 백운광장 일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남구청 제공

김병내 남구청장,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

광주 5개 자치구 단체장 중 유일 SA 등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9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행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실천 계획서를 평가했다.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는 자치단체가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따른 분석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5대 분야 32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주요 분야별 배점 점수는 공약실천 계



공개 등 민주성 및 투명성(20점) 등이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각 분야별로 뛰어난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구체적인 공약 실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배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들 입장에서 공약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16개동을 방문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약 추진사항을 설명해 오고 있는 점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약실천 계획서에 세부 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공약 추진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최우수 등급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내 구청장은 "공약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약속 행위"라며 "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22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오는 6월 7일까지...진단검사 등 무료

광주 남구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25일 남구청에 따르면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은 오는 29일부터 양림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방림동, 봉선동, 사직동, 백운동, 월산동, 주월동, 송암동, 효덕동, 대촌동 등 관내 16개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자 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들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각 동별 진행 날짜를 확인한 뒤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남구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치매 조

기검진 거점으로 활용, 치매 고위험군 분류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세에 진입하는 노년층 인구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백운광장 인근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주민들의 경우 보다 더 편리하게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망설이지 말고 관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금속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